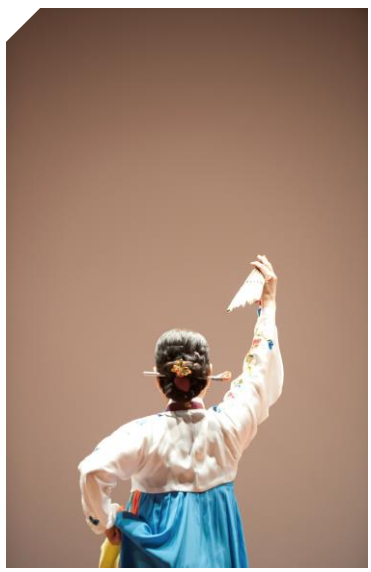
ARKO VISION 2030

창조의 기쁨을 함께 만드는 예술현장의 파트너

창조의 기쁨을 함께 만드는
예술현장의 파트너

CONTENTS









Ⅰ. 인사말 04

Ⅱ. 서문 08

Ⅲ. 비전 수립 기본방향 14

Ⅳ. 비전전략체계도 18

Ⅴ. 전략과제·세부과제 총괄 22

Ⅵ. 6대 전략과제 28

한국문화예술위원회

CHAPTER

I

인사말

창조의 기쁨을
함께 만드는
예술현장의
파트너

ARKO VISION 2030

위원장 인사말



VISION 2030

오늘, 당신과 함께
창조의 즐거움으로
채우는 내일을
그려봅니다.

ARKO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지난 2005년 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정부 주도의 예술지원정책은 끝없는 부침의 역사를 거쳐 왔고, 마침내 소위 블랙리스트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기관의 신뢰는 무너졌고 잘못된 역사가 남긴 여러 가지 문제들은 아직 해결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위원회는 46년의 역사를 가진 독보적인 예술 지원 기구이자 예술지원 정책의 중심이라는 사명감을 다시 되새겨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쌓인 오랜 관행과 기득권으로 발생한 왜곡된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제도적·인적·문화적 쇄신을 하겠습니다. 새로운 창작 환경 변화에 따른 예술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풀어나가며, 땅에 떨어진 기관의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새로운 비전은 "창조의 기쁨을 함께 만드는 예술현장의 파트너"입니다. 예술가의 창작 표현 자유를 지키고, 창작 과정과 결과의 즐거움을 모두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위원회가 주도적으로 혹은 독자적으로 해내는 것이 아닌 예술 현장과 같이 만들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위원회는 예술 현장과 예술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은 우리 사회의 정치·경제·사회를 매개하고 넘나들면서 각각의 근본가치를 드높입니다. 창작으로 새로운 가치를 생산하는 예술가의 숭고한 사명감은 지금도 어디선가 힘겹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은 성과와 결과를 중시하는 근대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돌아보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각인시켜 왔습니다. 예술은 풍족해져만 가는 물질 가운데 빈곤해져만 가는 인간의 본질을 채워주며, 문화는 우리의 내면을 보다 가치 있는 삶으로 채워주는 소중한 역할을 지켜 왔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예술에 대한 열정과 문화에 대한 열망이 성숙한 삶을 만들어간다는 굳건한 믿음을 바르게 이어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술이 우리 모두의 삶을 바꾼다는 믿음을 바탕에 두며, "사람이 있는 문화"와 "예술이 있는 삶"이라는 상위 정책목표의 실천 방안으로 "예술 현장과 함께하는 아르코"를 수립하였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역할에 한계를 두어 가두지 않고, 창작 지원의 믿음직한 수호자가 되고자 다짐합니다. 예술현장이 겪어야 할 실패와 경험을 지원하며, 창작 전 과정과 함께 하는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혹자들이 염려하는 예술의 종언 또는 위기와 맞설 새로운 힘을 만들기 위해, 예술이 갖는 진정성을 공동체 속에 다시 세우려 합니다.

예술지원 필요성의 사회적 동의와 공감대를 얻고, 지원 확대에 대한 요청의 목소리를 높일 것입니다. 예술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전면적인 사업 개편을 시행하겠습니다. 관행적으로 해오던 지원 사업과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영에 대한 혁신적인 개선안을 찾겠습니다. 예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의 실현을 위해 다양한 지원 기구와 지역문화재단을 잇는 횡적 협치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술현장과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듣는 것에서만 그치지 않고, 우리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담대한 시도와 창의적인 방법으로, 현장과 협력하겠습니다. 안주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변화하겠습니다. 예술이 모두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듯, 우리 역시 예술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우리 앞에는 기관 독립성 강화, 문화예술진흥기금 고갈을 해결하기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팽배한 불신감의 명확한 해소, 지역적·사회적인 분권과 혁신에 대한 요구 반영, #me_too #with_you 운동에서 출발한 전근대성의 불편한 민낯에 대응할 바른 개선안 도출, 새로운 예술 창작환경에 어울리는 지원체계 구축 등 전 방위적인 과제가 놓여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지워진 역할과 기대감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명확한 기관 위상과 미션 범위를 재설정하여야 하는 문제와도 마주하고 있습니다. 과제의 해결책을 책상 위에서가 아닌 예술 현장에서 찾아나가겠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현장으로부터 신뢰받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다시 세우겠습니다.

ARKO 비전 2030 계획은 비전을 선포하며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상을 만들기 위한 첫 출발의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몇몇 전문가가 만드는 것이 아닌 예술을 둘러싼 많은 사람이 같이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오늘은 내일을 그려나가기 위한 밑그림을 세상에 내어 놓았습니다. 곳곳에 비어 있는 부분은 이제부터 여러분과 함께 채워 나갈 것이며, 선포식은 그 첫 시작입니다. 부디 따뜻한 예술이 세상을 밝힐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7대 위원장 박종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CHAPTER

II

서 문

창조의 기쁨을
함께 만드는
예술현장의
파트너

ARKO VISION 2030

반복되는 위기 앞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태풍에 부서진 난파선과 같았다. 촛불집회에서 미투 운동이 있기까지 사무실에서 누구도 목청을 높이는 사람이 없었다.

짧은 시간 동안 그토록 급격하게 정체성이 수정되는 경험을 한 기관은 많지 않을 것이다. 블랙리스트는 우리를 표류하게 하였고 예술이 숨 쉴 수 있는 통로를 지웠다.

방향을 잃었다면 왔던 길을 돌아보며 다시 길을 찾아야 한다. 현재는 매 순간 탄생하고 다시 과거로 소멸한다. 우리에게 힘들었던 혼돈의 시간과 함께 세상도 예전의 지평선을 통과했다. 우리는 과거는 끝나고 미래는 시작되지 않은 이 모호한 경계에서 우리가 처한 현재를 시련으로 여기지 않고 바로 보고자 한다. 정치에게는 피해자가 되고 예술에게는 가해자가 되는 역사를 견디는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인지 모른다. 생각해보면 이번에도 어려움 속에 소중한 합의 하나를 얻었다. 그것은 정권에 따라 어떤 변화가 오더라도 예술위원회는 예술의 편에서 예술행정의 근간을 설계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과거 문예진흥원의 존립근거였던 문예진흥기금 수입원이 막히고, 문화부는 대안을 잃은 상황에서 예술의 위기가 높아졌다. 문화의 세기가 강조되며 한류열풍이 시작되었지만 문화산업이 육성된다고 예술의 위기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었다. 결국 정부는 기초예술의 발전 없이는 문화산업의 성장도 없다는 <순수예술진흥종합계획>을 내놓았다. 이때 예술계의 뜻을 결집한 곳이 이 기구였던 이유는 예술지원의 오랜 경험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예술지원 그 자체가 훼손되었던 최근의 위기상황 속에 다시 한 번 길을 찾기 위해, 문화부는 위원회 체제를 탄생시킨 당사자로서 예술위원회가 보다 빨리 공공 능력을 갖도록 도와야 하며, 예술위원회는 국민 앞에 기관의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한다.



예술의 근원적 가치와 의미에 대한 수호

우리는 그간의 대통령선거에서 모든 후보들이 공통되게 약속한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것"이 예술지원의 절대적 조건임을 의심하지 않는다. 국가는 사회를 위하여 예술현장의 지형도를 검토하고 이를 활성화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할 능력과 의무가 있다. 그리고 예술위원회가 그러한 임무를 가지게 된 것은 어느 정권이 아니라 시대적 변화에 의한 것이었다.

문화의 세기라고 명명한 21세기의 시대 변화 속에 문화는 생존을 위한 활동의 바깥에서 소비되는 수동적인 활동을 넘어, 새로운 시장을 주도하는 강력한 동력으로 떠올랐다. 각종 미디어와 디지털화된 콘텐츠는 문화적 소비품이자 주요한 생산영역의 자원이 되었다. 시장에서는 문화상품과 지적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문화산업이 국가경쟁력을 주도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예술은 그러한 문화적 가치의 원천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찾고, 독서와 음악과 무용을 통해 영감을 얻고 창의적 사유를 훈련하며, 그것을 또 다른 재부의 생산에 이용하지만, 하지만 누구도 그 원천에 값을 지불하지 않는다.

국가는 이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 사회는 그 동안 예술이 어떻게 사회 발전의 근간이 되는가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다. 예술에 대한 이야기는 정치적, 경제적 구호 앞에 묵살되곤 했다. 문화적 가치의 발원지인 예술의 본질적 역할을 탐구, 평가, 확산하려는 까다로운 접근방법은 회피하였다. 바로 그 지점에서 예술위원회의 정신이 태동했다.

2005년 9월 문예진흥원을 문화예술위원회로 전환하며, 예술행정과 예술현장이 한자리에 마주 앉게 되었다. 진흥이라는 단어가 위원회로 변화하며 제도의 성격이 독임제에서 합의제로 바뀌었다. 그에 따라 예술현장이 행정의 대상에서 동시적 주체로 승격되고, 조직의 위상도 문화적 가치의 발원지에 대한 관리처로 자리매김 했다. 조직의 역할은 시혜자에서 매니저로 변했으며, 사업의 방향성도 단순 기금지원 방식에서 환경조성 방식으로 재조정되었다.

문화는 강처럼 하나의 생태계를 형성하며 움직인다. 강이 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은 수원에서 솟아 나오는 강력한 힘을 갖기 때문이다. 또 상류의 사람들은 하류의 사람들을 위해 강을 더럽히지 않을 책임을 갖는다. 이 같은 문화 생태계 안에서 예술의 기능을 바라보아야 문화적 가치의 발원지에서 최전선까지의 체계를 살릴 수 있다. 신매체에 의존하는 장르일수록 시장적응력이 큰 지배적 장르 군(群)을 형성하고, 발원지에 속하는 매체일수록 문제적인 장르로 남는다. 언어를 매개로 한 문학, 조형으로 이루어진 시각예술, 무대에서 펼쳐지는 공연예술 등은 특히 그 시원의 영역에 속하는 것들이다. 우리는 그 시원을 지키기 위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예술의 고유한 가치를 보호하는 역할을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

사람과 삶을 비추는 예술의 힘에 대한 믿음

한국을 일컬을 때 가장 빈번히 등장하는 표현은 다이나믹 코리아이다. 그러나 영국의 기든스가 했던 말이 있다. "흥행은 사람을 결집시킨다. 그러나 고립된 상태로 결집시킬 뿐이다." 존재 간의 결속력과 연대감이 사라진 곳에서 공동의 선이 옹호될 기회는 없다. 오늘날 우리는 영토상의 제약을 떠난 공동의 네트워크 속에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공동의 선을 잃어버린 건강하지 못한 문화는 무수히 많은 사람을 서로 적대적인 상황에 처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몰가치 상태를 극복하기 위하여 각각의 정권은 저마다 정치 개혁, 부패 청산, 경제 발전, 빈부격차 해소 등을 외쳤지만 그것이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였다고 평가하는 사람은 없다. 결과 만능주의 앞에서 힘없는 개인들은 언제나 홀로 서 있었다.

이때 문화가 어떻게 국가의 문제해결을 위한 자산이 되는지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는 역설적이게도 거리에 운집한 개인들이다. 촛불시위는 이를 상징한다. 시민들은 무질서 속에서 질서를 창출하고, 파괴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하며 소통한다. 탈권위적, 탈중심적, 다중적 소통의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소통은 개인을 넘어 모두가 더불어 살아간다는 존재의 확인이자 해방인 축제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지역주의도, 세대 간 차별도, 빈부격차도 넘어 내국인과 외국인의 구별도 없어진다. 구성원 하나하나를 파편화시키고 사인(私人)화시키는 도시적, 자폐적 증상을 치유하는 것이다.

예술행정이 강화되어야 할 또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예술은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의존할 수 있는 자산이며 생의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데 필요한 도구이다. 누구에게나 중요한 것은 삶의 의미를 찾는 일이다. 우리의 내면세계, 즉 출생, 삶, 사랑, 죽음, 고통, 기쁨, 비참함, 공포, 안도, 성공과 실망의 세계 또한 나름의 발명자와 개척자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바로 이 같은 역할을 하는 예술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아르코 비전2030, 대화의 시작

우리 사회는 지금 세 개의 변곡점을 한꺼번에 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민족사를 재구성하는 통일사업은 분단체제의 유물을 한꺼번에 정리시킬지 모른다. 여기에 문화사적 변화 또한 빠른 속도로 예술 현장을 바꾸고 있으며, 이미 문명사적 변곡점을 넘은 디지털 문화의 심화 속에서 아날로그적 감수성은 도전을 받을 것이다.

선진국 모델을 뒤쫓던 개발도상국 하나가 문화적 변혁을 이루려면 복합적인 인식의 틀을 필요로 하게 된다. 민족 분단에 의한 군사적 긴장과 지역 간 갈등, 사회적 가치의 분열 등을 안고 있는 사회라면 더욱 그렇다. 시대전환에 따른 문화적 전략과 과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중첩된 사회의 모순들을 끊임없이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는 이 점을 중시하고자 한다.

민간의 운동은 정의를 중시하고 공공기관의 행정은 효율을 고민한다. 그 사이에서 예술행정은 얕은 합의가 아니라 깊은 공감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리고 이 같은 계획들이 하나하나 실현될 때 한국의 예술행정은 새롭게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 그러한 새로운 예술행정의 모습을 찾을 때까지 예술 현장과의 대화를 멈추지 않고자 한다. <아르코 비전 2030>은 그 대화의 시작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CHAPTER

III

비전 수립 기본방향

창조의 기쁨을
함께 만드는
예술현장의
파트너

ARKO VISION 2030

비전 수립 기본방향

2030년을 바라보는 중장기 전략임에 따라,
미래 과제와 기관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초점을 맞춤

예술 창작의 심화 및 영역 확장, 이에 따른
결과물의 공유를 통해 모두가 수준 높은 예술의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사업 다변화

자율성과 독립성을 표방하는 '합의제' 기구의
전환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예술 현장 소통 강화

관성적으로 추진하는 업무 방식에 대한 개선과 혁신을 통해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 대응

조직 구성원이 업무추진 시 최우선으로 지켜야 할 핵심가치를 현장 중심, 고객 지향적으로 재설정



'예술가가 하고 싶은 창작'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예술은 모두를 위한 것'으로
누구나 가까이에서 창조하고 이를 통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술현장을 대표하는 합의제 기구' 본연의 역할을
잊지 않도록

한국문화예술위원회

CHAPTER

IV

비전 전략 체계도

창조의 기쁨을
함께 만드는
예술현장의
파트너

ARKO VISION 2030

미션

문화예술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창조의 기쁨을 공유하고, 가치 있는 삶을 누리게 한다.

3대 전략목표

첫째.
예술의 창의성과 다양성 존중

둘째.
문화예술 가치의 사회적 확산

셋째.
자율과 협력기반의 기관 운영

6대 전략과제 (15개 세부과제)

01
예술의 지평 확대
- 지속가능한 예술가의 창작 터전 공고화
- 예술의 실험성과 다양성 뒷받침
- 아르코 창작 공간의 특성화

03
문화예술의 사회적 역할 확대
- 문화예술 가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
- 문화예술을 통한 미래 사회 대응
- 사회적 자산으로서의 문화예술 가치 보존

05
기관운영체계 혁신
- 문화예술지원기관으로서의 공공성과 자율성 강화
-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 안정성 확보
- 혁신경영을 위한 조직역량 강화

비전

창조의 기쁨을 함께 만드는 예술현장의 파트너

02
예술 현장 중심 지원체계 확립
- 현장 친화적 정책 지원 강화
- 문화예술계 공정환경 조성

04
모두를 위한 예술 공유
- 문화예술 향유 격차와 불균형 해소
- 문화예술의 새로운 창조와 향유를 위한 권리보장

06
현장 협력형 기관 운영
- 협치형 위원회 운영 활성화
- 현장예술 중심의 생태계와 공론장 형성

핵심가치

도전과 변화
담대한 시도와 창의적 방식으로 능동적 변화를 추구한다.

공감과 협력
예술현장과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협력한다.

공공책무성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공공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CHAPTER

V

전략과제·세부과제 총괄

창조의 기쁨을
함께 만드는
예술현장의
파트너

ARKO VISION 2030

사업부문

총괄표

전 략 과 제	세 부 과 제
예술의 지평확대	**지속가능한 예술가의 창작 터전 공고화** ① (생애·경력단계별) 예술인 맞춤형 지원제도 정교화 ② (작품주기별) 창작-발표-확산-유통-해외진출 지원 기반 강화 ③ 예술단체의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중장기 집중 지원제도 도입 ④ (인력양성) 문화예술 인력육성체계 혁신 및 일자리 창출 ⑤ 국경 없는 예술활동 확산을 위한 국제예술 교류 지원 다각화
	예술의 실험성과 다양성 뒷받침 ① 다년간 창작 실험 프로젝트 지원 강화 ② 다원예술지원 체계 마련 ③ 새로운 창작영역 확장을 위한 과학기술 협력 기회 제공 ④ 기초예술의 온라인 공간 개척 ⑤ 예술 수용의 다양성 증진을 위한 관객 개발
	아르코 창작 공간의 특성화 ① 새로움에 도전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공연장 : 아르코·대학로 예술극장 ② 동시대 시각예술의 실험성과 다양성 조망 : 아르코미술관 ③ 탈장르형 작품 실험 공간으로서의 인사미술공간 활용 방안 모색
	소계 | 3개 세부과제 13개 핵심사업

전 략 과 제	세 부 과 제
예술현장 중심 지원체계 확립	**현장 친화적 정책 지원 강화** ① 예술창작지원의 다양한 지원형태 모색 ② 사업 목적에 가장 적합한 심의유형 모색 및 도입 ③ 문화예술 지원 컨설팅 기능 강화
	문화예술계 공정환경 조성 ① 성평등 예술 창작환경 조성 ② 예술계 '공정임금'에 대한 인식 확산
	소계 | 2개 세부과제 5개 핵심사업

전 략 과 제	세 부 과 제
문화예술의 사회적 역할 확대	**문화예술 가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
	① 예술가치 지표 개발 ② 예술가치 확산 국민 캠페인 추진 ③ 문화예술 가치 옹호 기념행사 개최 ④ 민간 문화예술 후원 매개활동 활성화
	문화예술을 통한 미래 사회 대응
	① 사회적 이슈에 대한 예술의 참여활동 지원 확대 ② 예술을 통한 지역 활력화
	사회적 자산으로서의 문화예술 가치 보존
	① 예술기록 유산 수집·보존 체계 및 인프라 강화 ② 예술기록 가치 공유·확산을 위한 다각적 서비스 개발 ③ 문화예술 콘텐츠의 디지털 아카이빙 확대
	소계 | 3개 세부과제 9개 핵심사업

전 략 과 제	세 부 과 제
모두를 위한 예술 공유	**문화예술 향유 격차와 불균형 해소**
	①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② 문화예술 향유의 사회적 장애물 해소 ③ 창작과 향유사업 선순환 체계 구축
	문화예술의 새로운 창조와 향유를 위한 권리보장
	①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체험하고 향유할 수 있는 기반 조성 ② 어린이·청소년 대상 예술 창작활동 지원 확대 및 보급
	소계 | 2개 세부과제 5개 핵심사업

중장기 예산계획

전 략 목 표	전 략 과 제	2020	2024	2027	2030
예술의 창의성과 다양성 존중	예술의 지평확대	664억 원	1,038억 원	1,420억 원	1,994억 원
	예술현장 중심 지원체계 확립	3억 원	5억 원	7억 원	10억 원
	합계	667억 원	1,043억 원	1,427억 원	2,004억 원

전 략 목 표	전 략 과 제	2020	2024	2027	2030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	문화예술의 사회적 역할 확대	288억 원	336억 원	367억 원	410억 원
	모두를 위한 예술 공유	1,403억 원	1,612억 원	1,763억 원	1,913억 원
	합계	1,691억 원	1,948억 원	2,130억 원	2,323억 원

경영부문

총괄표

전 략 과 제	세 부 과 제	
기관운영체계 혁신	문화예술지원기관으로서의 자율성과 공공성 강화	
	① 기관의 역할과 위상 재정립 ② 빅데이터 기반 지원정책 개발 ③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 안정성 확보	
	① 안정적 사업 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재원 마련	
	혁신경영을 위한 조직역량 강화	
	① 위원회의 지원정책 전문성 및 전략 실행력 강화 ② 외부 개방과 내부 전문성 강화를 통한 조직 성과 제고 ③ 예술행정 전문가 양성을 위한 인사관리체계 확립 ④ 동기부여 극대화를 위한 인사제도 확립으로 조직생산성 제고 ⑤ 사회적 가치구현을 통한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 이행	
	소계	3개 세부과제 9개 핵심사업

전 략 과 제	세 부 과 제	
현장 협력형 기관 운영	협치형 위원회 운영 활성화	
	① (숙의민주주의) 토론과 의사결정을 위한 시스템 구축 ② 예술현장 참여 활성화를 위한 소위원회 운영 강화	
	현장예술 중심의 생태계와 공론장 형성	
	① 예술현장 아고라와 정책 혁신 캠프 운영	
	소계	2개 세부과제 3개 핵심사업

한국문화예술위원회

CHAPTER

VI

6대 전략과제

창조의 기쁨을
함께 만드는
예술현장의
파트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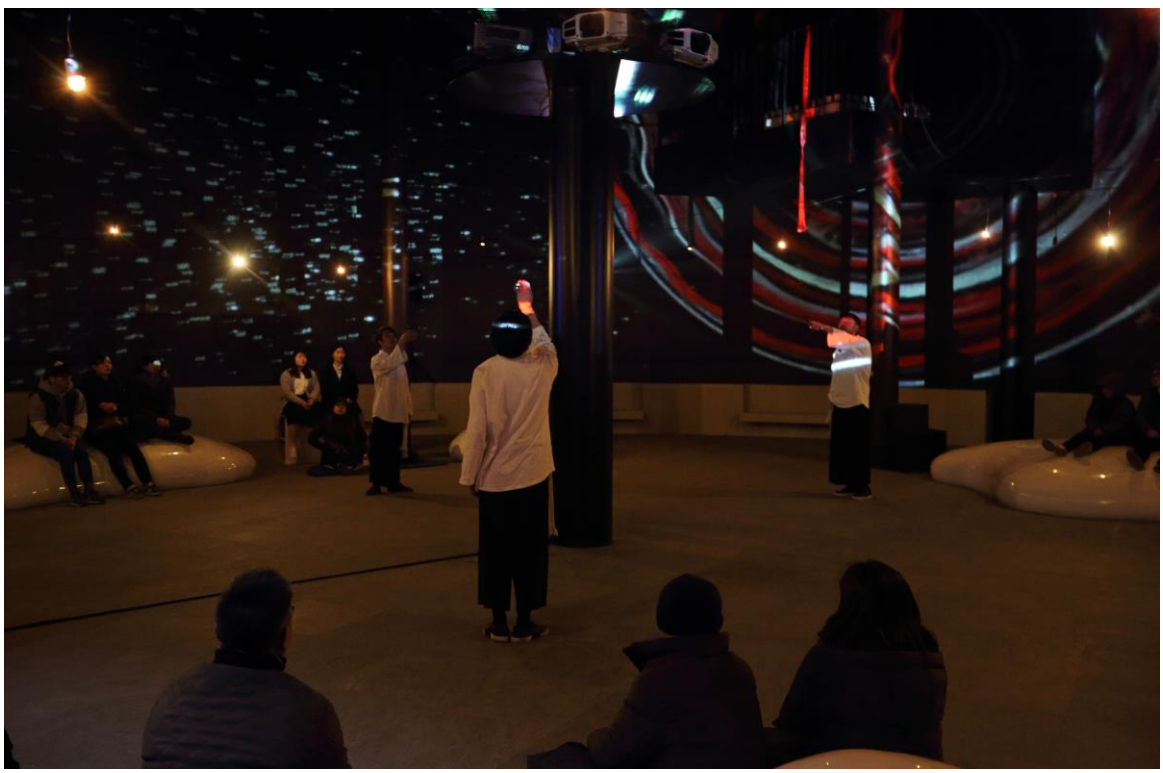
ARKO VISION 2030

01 예술의 지평 확대

<2018년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예술창작환경은 여전히 열악합니다. 1년간 예술작품 발표 횟수는 '15년 9.1회에서 '18년 7.3회로 감소하였고, 예술경력 단절 경험률은 '15년 15.9%에서 '18년 23.9%로 증가하였습니다. 예술활동을 통한 연간 개인 수입은 1,281만원에 불과했습니다.

예술위원회는 생활의 유지 문제 앞에 예술창작의 자유가 훼손되지 않도록 다각도의 지원사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단순한 재정적 보조 또는 지원의 관점이 아니라, 예술가의 입장에서 지원행정 체계를 돌아보고, 예술가가 하고 싶은 창작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창작 환경 구축을 하고자 합니다.

예술가에게 더욱 적합한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지원사업을 더욱 정교화하고, 예술창작의 실험적 시도들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다년간 지원사업 체계, 다원적 예술 지원체계 등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아르코. 대학로 예술극장, 아르코미술관 등 예술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통해 예술가의 실험적 창작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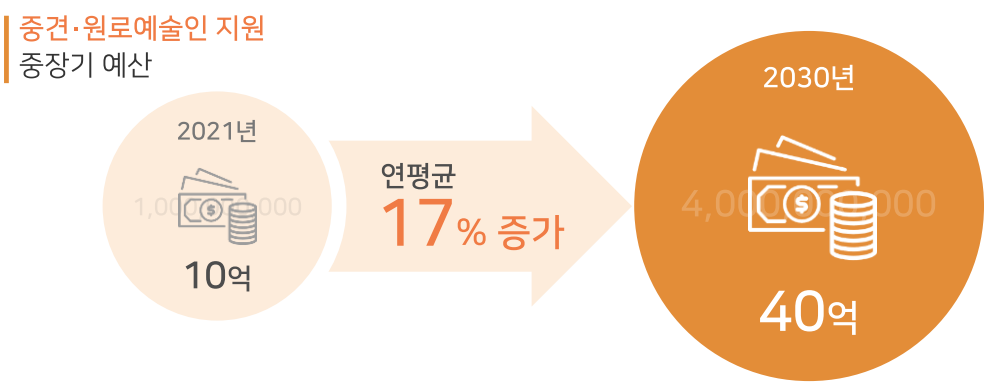
지속가능한 예술가의 창작 터전 공고화

[생애·경력단계별] 예술인 맞춤형 지원제도 정교화

- (예비·신진예술인) 새로운 창작실험에 대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거듭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최초)지원제도 도입
  - 청년예술인 창작활동비 지원 및 전문가멘토링, 통합홍보 제공
  - 사후평가를 통해 활동기간 내 최대 3회 정도까지 지원 및 지원규모 점증

- (중견·원로예술인) 지원방식 다양화(사업 간 연계 지원, 간접지원 등), 지원규모 확대를 통한 안정적 창작 환경 마련
  - (중견) 국내·외 인지도 제고와 충분한 창작발표 기회 제공
  - (원로) 경력·경험의 사회 환원 기회 및 아카이빙 지원





[작품주기별] 창작-발표-확산-유통-해외진출 지원 기반 강화

- (창작과정별 지원)예술 창·제작 과정별 지원 체계 정교화
  - 예술가의 실험적. 미학적 도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재 및 리서치 등 사전 창작단계 지원 확대
  - 프로젝트의 성격 및 창작 과정에 따라 단년도 또는 다년도 등 지원방식 다각화

- (장르별 창작 과정 특성화)창작 과정의 각 단계별로 세부 장르의 특성을 고려한 개별 지원 사업 최적화 및 심의방식 다원화
  - 각 세부장르별 창작주기와 기간을 고려한 지원 체계 정립
  - 낭독, 실연심의, 독회 등 각 세부 장르의 성격에 맞는 다양한 심의방식 도입

- (맞춤형 유통 및 성과확산) 기관 내 사업 간 연계를 통한 창작산실 작품의 안정적 국내·외 유통망 마련

창작 단계별 지원체계 정교화

1단계 : 준비	2단계 : 실험	3단계 : 제작	4단계 : 유통·확산
취재·리서치 창작소재 발굴 대본·작품 기획	쇼케이스 낭독공연 창작 워크숍	작품제작·발표 아카이빙	지역순회 해외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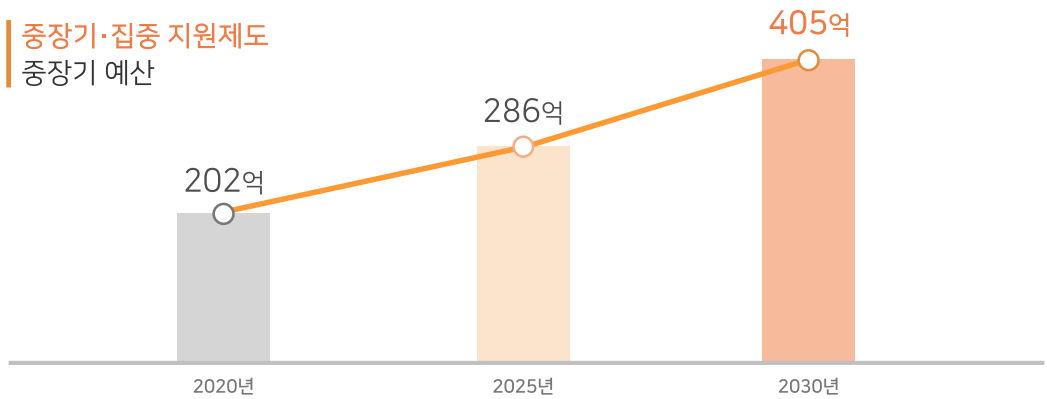
← 온·오프라인 홍보. 마케팅, 관객개발 및 성과 아카이빙까지 포괄적 지원 →





예술단체의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중장기·집중 지원제도 도입

- 공연예술 창작 프로젝트에 대한 다년간 지원(최대 3년)을 통해 민간분야 창작·제작 역량 향상과 안정적 기반 마련
- 단년간 지원 사업 중 중장기 집중 지원 적합사업 발굴 및 전환 추진



[인력 양성] 문화예술 인력육성체계 혁신 및 일자리 창출

- (예술인력육성체계 혁신) 분화하고 있는 문화예술 분야 전문 인력의 교육 수요를 적극 수용할 수 있는 공간기반 마련
- (문화예술 기획인력 집중육성) 문화예술 생태계의 활력을 도울 수 있는 문화예술 유관인력 육성
- 예술인-공공서비스 간 협업형 일자리 확대

국경없는 예술활동 확산을 위한 국제교류지원 다각화

- (사업모델 개발) 다년간 구축된 국제예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고유의 국제교류모델 개발
- 탈장르·융복합, 문화정책 및 사회적 가치 중심의 국제교류 활동까지 지원범위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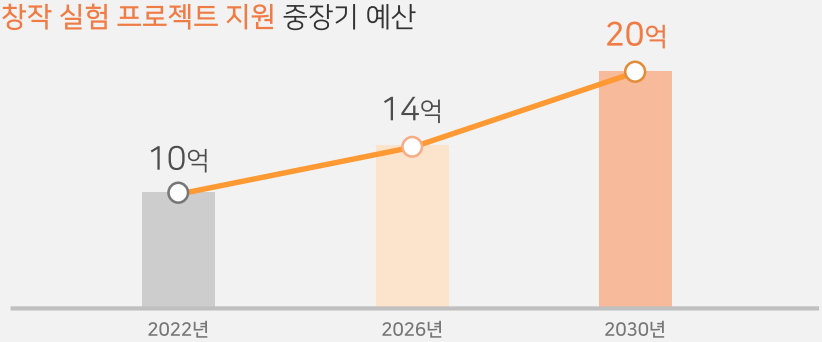
예술의 실험성과 다양성 뒷받침

다년간 창작 실험 프로젝트 지원 강화

- 작품의 심화·발전을 위한 다년간 지원 사업 체계 확대 및 신규 발굴
  - 연구활동, 창작 단계 심화, 창작결과물 발표 등 전 과정 지원

- 사업의 지원 신청 참여만으로도 예술가의 창작활동에 자극이 되어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는 지원심의 방식 적용
  - 전 지원신청자 참여 및 전문가 컨설팅 병행, 창작경향 파악 및 작품 발전에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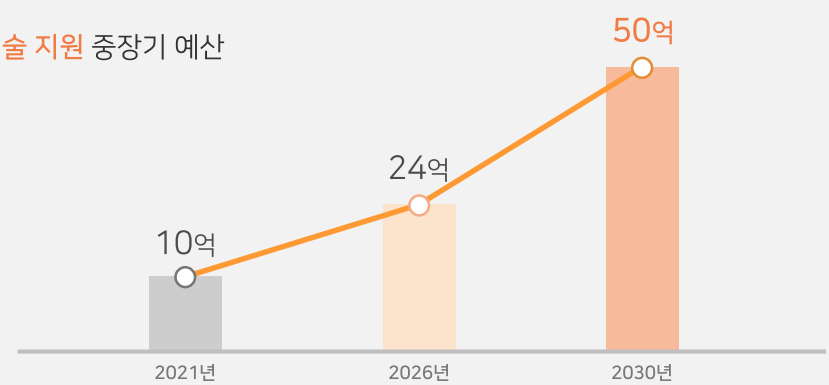
다년간 창작 실험 프로젝트 지원 중장기 예산



다원예술 지원 체계 마련

- 장르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다양한 예술적 가치의 실현을 담은 다원예술 지원체계 복원

다원예술 지원 중장기 예산



새로운 창작영역 확장을 위한 과학기술 협력 기회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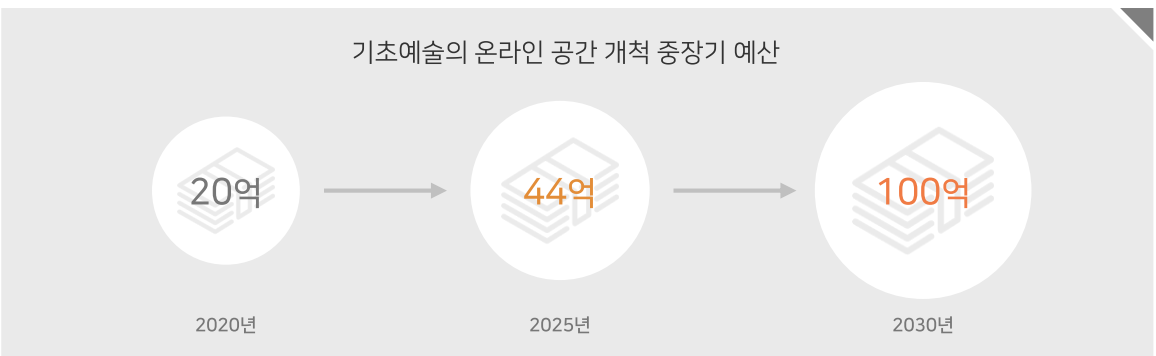
- (이종분야 교류) 기관 간 협력을 통해 개인이 접하기 어려운 기술 및 환경의 체험, 워크숍, 세미나 개최 및 프로젝트 참여 기회 제공
- AR/VR, 3D 프린팅 기술 등을 적극 활용한 새로운 형식의 작품 제작을 위한 초대형 융복합 기술 매칭 지원
-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공유창작플랫폼 신설





기초예술의 온라인 공간 개척

- 예술-기술 창작자들의 실험적 시도가 단계적으로 구현되고, 국내·외 관련 전문가들이 유연하게 네트워킹하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
- 동시대 기술을 활용한 작품 창작 지원과 온라인을 통한 시공간 초월 향유 환경 마련
  - 공연예술 온라인 확산 지원사업을 다른 장르까지 확대



예술 수용의 다양성 증진을 위한 새로운 관객 개발

- 다양한 형태의 창작이 본연의 예술이 지닌 가치를 어떻게 전달하는지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통해 관객 개발 전략 수립
  - 확장된 형태의 창작 작품에 대한 관객 수용성 파악을 위한 연차별 패널조사·분석 및 공유

아르코 창작 공간의 특성화

새로움에 도전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공연장 : 아르코·대학로 예술극장

- 창작, 실험적 경향, 신진예술가, 중규모화 작품을 위한 실험무대로서 공연예술의 새로운 경향 제시
  - 공연작품 수가 많은 작품, 실험적 경향, 무대를 중규모화 하려는 작품을 테스트할 수 있는 실험무대로 운영
  - 다양한 예술가들의 네트워크 장, 아이디어들이 창의적으로 발현되어 창작 실험이 이루어지는 장으로서의 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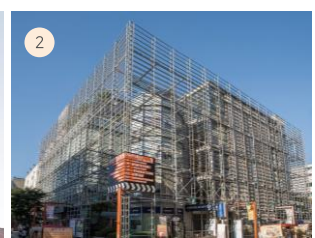
동시대 시각예술의 실험성과 다양성 조망: 아르코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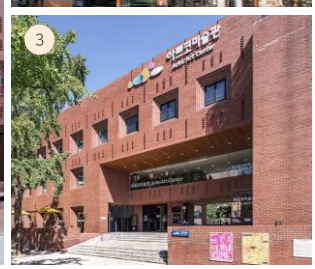
- 동시대 시각예술 담론 생산과 확산의 거점으로 활성화하고, 탈장르, 장르·융합형 다학제 예술로의 진화 가능성을 모색하는 플랫폼 역할 구축
  - 국내외 시각예술계 동향을 살필 수 있는 유수 작가 초청 전시 기획
  - 과학, 기술 등 인접분야 유관기관 협력네트워킹을 통한 실험적, 탈장르, 융합장르형 예술 전시 기획 및 연계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 문화다양성 가치 및 인식 제고를 위한 공동체 기반 예술 전시 및 기획자 전시 간접 지원(기관 교류, 협력 기획 등)

탈장르형 작품 실험공간으로서의 인사미술공간 활용 방안 모색

- 인사미술공간의 일부 기능을 다학제 예술 실험이 가능한 아트랩 공간으로 활용
  - 예술인들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및 쇼케이스 공간 구축
  - 타 장르와 교류·협력을 통해 신진, 다원 예술인들의 네트워킹 활성화, 융합형 예술실험을 위한 공연무대기술 교육, 예술프로그램 등 지원







1 아르코예술극장

2 대학로예술극장

3 아르코미술관

02 예술현장 중심 지원체계 확립

창작의 실험을 지원하고, 창작을 지속할 수 있는 직접적인 예술지원 이외에 예술인이 자신의 창작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예술위원회는 기존의 지원방식에 대해 고민하고 예술현장에 필요한 지원의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예술생태계 자생력 제고를 위해 기존의 보조금 지원 방식 이외의 투융자, R&D, 인력지원 등 다양한 지원형태를 예술현장의 필요에 맞게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운영에 있어 예술가 편의확대 및 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해나가는 한편, 계약·정산 등 예술인이 마주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여 예술창작 직접지원 이외 간접적 방식의 지원체계도 마련하겠습니다.

최근 문화예술계 성폭력, 예술가에 대한 불공정 임금지급 등 비민주적, 비인권적 관행 척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예술계의 위계폭력 근절, 불공정한 창작 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친화적 정책 지원 강화

[제도개선] 예술창작지원의 다양한 지원 형태 모색

- 예술 생태계의 자생력 제고를 위하여 위원회 사업 대부분의 지원 방식인 보조금 지급 이외의 예술창작지원에 적합한 다양한 지원 형태 모색
  - 투·융자, R&D 사업, 인력 지원, 공간 지원 등 사업 목적과 지원대상에 따라 지원방식 세분화

사업분석	예술창작지원 사업 분석(사업 대상, 사업성격, 예산 등)
사업도출	지원방식 개편 적합 사업, 신규 사업 도출 및 현장예술계·전문가 의견 수렴
예산확보	지원사업 방식 개편 시범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사업수행	시범 사업 운영 및 평가·환류
사업 대상 확대	시범사업 운영 결과 현장 공유·의견 수렴 후 사업 대상 확대

[제도개선] 사업 목적에 가장 적합한 심의 유형 모색 및 도입

- 사업계획서 서류 심사 위주의 지원심의제도를 개선하여 사업의 목적에 적합한 지원자를 선별할 수 있도록 사업별 특색에 맞는 다양한 심의 방식 도입
  - 심의 진행 전 과정에 쌍방향 소통방식 강화
  - 전담심의위원제, 관객평가제 확대, 수시지원제도, 무신청지원제도 등 보다 과감하고 혁신적인 심의제도 실험적 운영

문화예술 지원 컨설팅 기능 강화

- e-나라도움 안내센터,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콜센터, 문화누리카드 콜센터 등 통합 운영
-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 다른 유관 기관 컨설팅까지 통합서비스 제공
- 계약, 정산 등 지원컨설팅 강화, 고충, 애로상담지원 기능 확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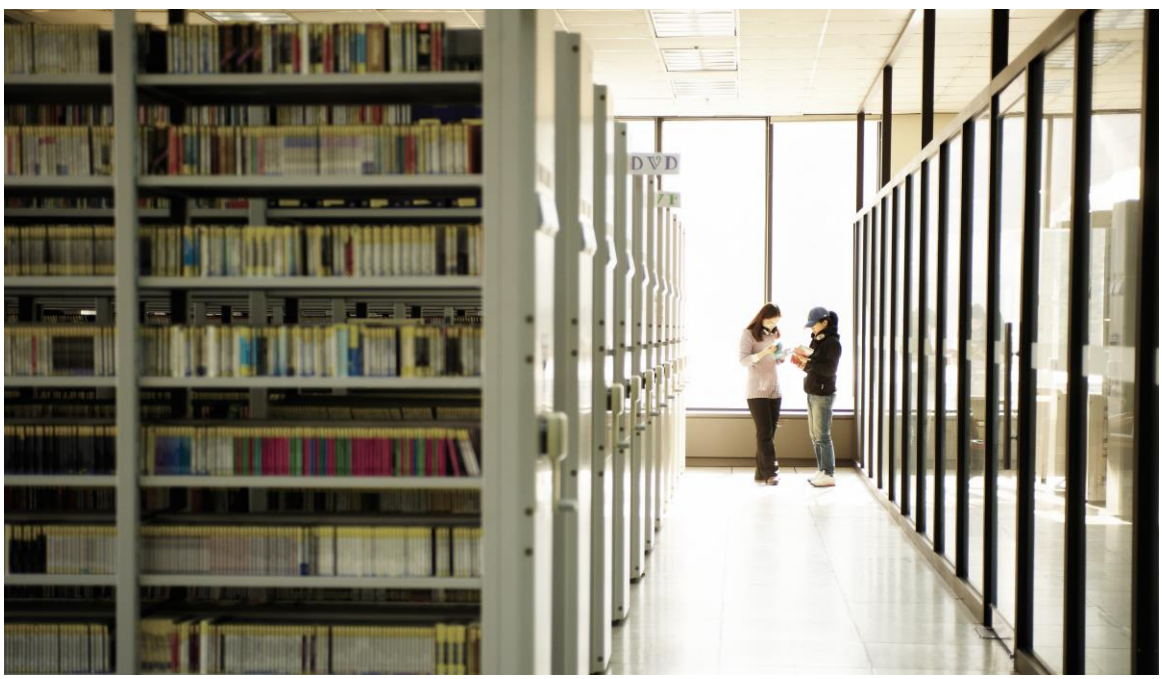
문화예술계 공정환경 조성

[인권 보호] 성평등 예술 창작환경 조성

- (예방) 지원사업 참여자 대상 성차별, 성폭력, 위계폭력 예방교육 실시 및 지원 참여 시 성폭력 예방 서약서 체결 의무화
- (보호) 성차별·성폭력·위계폭력 사실이 확인된 자에 대해 사법적 판결 이전에 소정의 행정절차에 근거해 신속한 피해자 보호 조치와 가해자 영구 공적 배제 조치
- 여성 예술인 문예기금 지원 실태조사 및 성평등 기반 지원 정책 마련

[인권 보호] 예술계 '공정임금'에 대한 인식 확산

- 각 분야별 지원사업 내 사례비 지급 현황 조사 및 적정 기준 마련 연구
  - 문예기금 지원 사업에 표준안 적용 및 타 기관으로 확대
- 기금사업 참여 시 문화예술분야 표준계약서 활용 서면계약 체결 현황 파악 및 의무화
- 교부/정산 시 불공정, 불법행위 등에 대한 수혜단체 관리 책임 강화



03 문화예술의 사회적 역할 확대

오늘날 우리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어서며 경제적으로는 매우 번영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사회 전반에는 경제 양극화, 지역 · 세대별 · 성별 갈등 등 사회 기반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분열과 대립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인구구조가 변화하며 지역의 쇠퇴와 소멸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직면한 이러한 갈등과 문제를 해소하는데 있어, 예술의 사회적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사회문제에 대한 예술적 접근을 확대하여 문화예술을 통한 대안적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예술은 개인에게 있어서는 내면적 힘을 기르게 하는 도구이며, 사회적 차원에서는 공동체가 당면한 이슈를 창의적 시각으로 드러냄으로써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문화예술이 가진 이러한 힘을 바탕으로 분열과 대립을 넘어 상생과 공존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렛대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그 출발점으로 문화예술의 중요성과 가치를 국민들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캠페인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적 자산으로서의 예술기록들을 보존하고, 그 성과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정비하여 예술의 가치를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예술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여, 보다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매개자이자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노력할 것입니다.



문화예술 가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

예술가치 지표 개발

- (한국사회 예술의 가치 보고서(가칭) 발행) 예술의 사회 기여도 및 국민의 예술 전반에 대한 인식 보고서 발행
- (가칭) 예술 지수(Arts Index) 조사 및 발표
  - 예술정책의 실증적 성과와 확산을 위해 국민, 예술가 대상 정기조사 실시
- (기초예술 데이터 발표) 위원회 보유 데이터를 가공, 외부에 제공하여 기초예술관련 연구 확산 계기 제공

예술가치 확산 국민 캠페인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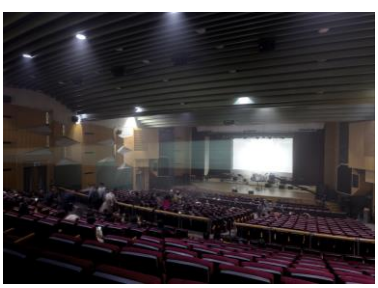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예술 본연의 가치와 확산적 가치(사회·문화·산업 등)를 조명하고 전파하는 스토리텔링형 홍보 강화로 국민의 기초예술 호감도 향상
- 국민참여형 문화예술활동 캠페인 지원
  - 예술가, 예술 애호가 1인 미디어 제작 및 유통 지원 등

문화예술 가치 옹호 기념행사 개최

- (정책컨퍼런스 연례화) 다양한 공공 및 민간 지원주체가 참여하여 문화예술진흥 방향을 고민하고, 토론하는 장 마련
- (시상식 개최) 예술가치 확산을 위해 정기 시상식 개최

민간 문화예술 후원 매개활동 활성화

- 문화예술 후원 매개인력과 단체를 확대하고 네트워크 구축
  - 문화예술 후원 매개단체 지원을 확대하여 기업후원 문화 활성화
  - 문화예술 후원 매개인력을 육성하여 전국 메세나 네트워크 구축
- 문화예술 후원 우수기관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잠재적 후원자 및 고액후원자 그룹을 체계적으로 관리
- 기부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및 활성화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기부금 관리





문화예술을 통한 미래 사회 대응

사회적 이슈에 대한 예술의 참여활동 지원 확대

-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예술의 접근을 통해 대안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지원사업 확대
- 문화다양성에 대한 상호존중과 가치이해를 위한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사업' 추진
- 문화정체성에 따른 '다양성 쿼터제'를 지원사업에 도입하여 예술창작의 다양성 확보 및 사회적 이해증진의 기회 동시 확대
- 문화예술분야의 사회적 경제조직 지원 강화
- 현대사회의 문제에 대한 예술적 접근을 확대하기 위해 예술의 장르 및 사업의 형식을 제한하지 않고 대중의 참여를 확장한 '프로젝트 기반 지원사업' 추진 확대

예술을 통한 지역 활력화

- 지역의 소멸 문제에 대응하여 예술을 통해 고유한 지역성을 회복·강화하고, 지역에 활력을 더하는 사업 다각화
  - 지역의 문화 정체성과 자산을 보호, 지역성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예술사업 추진
- 지역성을 반영한 공공미술 작품 제작에서 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예술까지 다양한 층위의 '아르코공공예술사업' 추진



사회적 자산으로서의 문화예술 가치 보존

예술기록 유산 수집·보존 체계 및 인프라 강화

- 자료 수집 및 관리 방법론의 체계화
  - 장르별 수집정책 정비 및 중장기 주력 대상 선정을 통해 컬렉션 구축 완성도 제고
  - ARKO 주요 지원사업 결과물 보존 및 기관 아카이브 개발로 고유 컬렉션 구축
  - 문화예술 기록유산 보존을 위한 예술 기록화 사업 규모 확대 및 관련 기술 고도화 추진
- 인력 및 시설 등 인프라 최적화를 통한 사업 전문성 강화

예술기록 가치 공유·확산을 위한 다각적 서비스 개발

- 예술 아카이브 고객 특성화 서비스 개발
  - (전문가 대상) 전문 정보서비스 및 레지던스 등 예술 창작 및 연구 지원 체계 개발
  - (공공 서비스) 예술자료 컬렉션 활용, 기록문화 체험 프로그램이 가능한 문화예술 향유 공간 조성 및 차별화된 서비스 구현
- 예술기록물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서비스 추진
  - 예술기록물 및 디지털 콘텐츠의 활용 독려, 기록물 활용 방법론 공유
  - 공연실황영상의 유통 확대 방안 모색(포털 생중계, IPTV 유통 등)
  - 큐레이션 기획, 아카이브 전시, 체험 행사 등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 개발

문화예술 콘텐츠의 디지털 아카이빙 확대

- 고유 예술 콘텐츠 제작·발굴 및 디지털 컬렉션 개발 확대
- 유관 기관 네트워크 기반 통합 검색 플랫폼 개발 확대
  - 예술 콘텐츠 시스템 보유 기관과의 콘텐츠 공유, 검색 연계 추진



04 모두를 위한 예술 공유

인간의 삶은 문화예술을 통해 보다 풍요로워 집니다. 2013년 문화기본법이 제정되며 문화적 권리가 법으로 보장되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문화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 누리는 보편적 권리로 인식되기 시작했으며, 국가는 국민의 문화권 보장을 위한 책무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삶의 질을 중시하는 생활방식의 확산, 주 52시간 근무제, 인공지능 등 사회·경제·기술환경 전반에 걸친 변화의 흐름에 따라, 문화예술은 이전 어느 때보다 우리 삶 속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한편에는 사회·경제·지리적 제약으로 인한 문화향유의 불균형 역시 여전히 존재합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분야를 지원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국민의 문화향유를 가로막는 사회적 장애물을 해소하고, 일상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 과정에서,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청소년들이 문화예술을 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문화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환경도 만들고자 합니다. 국민의 삶이 언제나 예술로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문화예술 향유 격차와 불균형 해소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 통합문화이용권 전체 사업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점진적 예산 확대
- 통합문화이용권을 사용한 청소년이 향후 문화애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금 추가 제공
- 기초예술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 확대 및 전국 국공립 문화시설과 연계한 할인혜택 확대



문화예술 향유의 사회적 장애물 해소

- (프로그램 강화) 시·군 단위 문화 소외지역 대상 예술지원 프로그램 대폭 확대
- (인프라 활용) 소외지역 중심으로 일상 속 문화예술 향유를 할 수 있는 생활 SOC 활용 문화예술 향유 여건 마련



창작과 향유사업 선순환 체계 구축

- 전국의 국·공립 시설 활용, 우수 프로젝트의 순회공연 지원예산 대폭 확대
- 문화예술 저변 확대를 위한 시민 체험 프로그램, 창작자와의 만남, 취미활동 장려 프로그램 확대



문화예술의 새로운 창조와 향유를 위한 권리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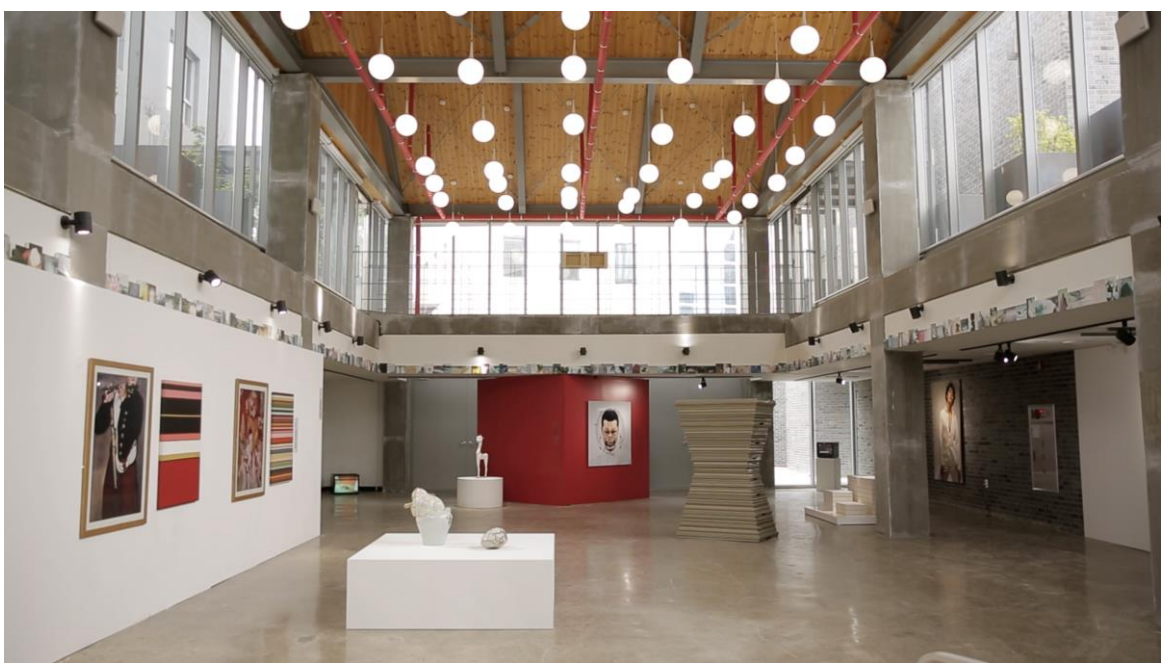
[기반 조성]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체험하고 향유

- 만물인터넷(IoE)시대의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문화예술 체험과 경험의 패러다임 변화 주도
  - 지능정보기술(AI, AR/VR, Big Data 등) 예술을 융복합하여 시공간을 초월해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콘텐츠 및 향유 플랫폼 개발
  - 전시·공연 작품을 디지털화하거나 온라인에서 경험할 수 있는 콘텐츠로 만드는 지원사업군 신설

-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문화예술 콘텐츠를 지역으로 확산하여, 국민 누구나 집 가까이에서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 구축
  - 도시재생, 지자체 연계 예술관람 프로그램 운영, 관광프로그램 연계 레지던스 운영, 지역문학관 활용 국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 확대 및 보급] 어린이·청소년 대상 예술 창작활동 지원

- 어린이·청소년 대상 지원사업군 별도 신설 및 어린이·청소년을 주요 관객으로 타겟팅하는 작품에 대한 기금 지원 강화
- 전국 국·공립 문화시설을 활용하여 어린이 및 청소년 대상의 콘텐츠 보급 연계 지원



05 기관운영체계 혁신

사회의 변화는 급격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갈등은 더욱 다양한 양상으로 사회 문제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노동과 복지, 병역, 환경, 성(性) 등 각 영역에서 누적되어 온 갈등과 요구가 분출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제 30년 넘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를 규율해온 '87년 체제'의 보완적 계승이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헌정역사상 87년이 갖는 의미가 퇴색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다만, 30년이 지나는 동안 변화한 환경을 대응하기엔 더 이상 완벽한 해법이 되지 못한다는 문제인식에서 '87년 체제'의 변화가 논의되는 것입니다.

'87년 체제'에서 문화예술행정체계에 대한 의미를 찾아봅니다. 문화예술행정체계를 돌아보면, 1972년 8월 문화예술진흥법의 제정, 1973년 10월 문예중흥선언 발표 및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설립 이후 우리나라 문화예술행정체계는 50년 가까운 세월동안 큰 변화 없이 운영되어 왔습니다. 2005년 8월 독임제 기구에서 현장예술인의 참여와 합의로 운영되는 합의제 기구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에도 자율과 분권, 소통과 참여의 가치 하에 예술정책이 수립되어 오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문화예술행정체계의 '보완적 계승'을 논의하려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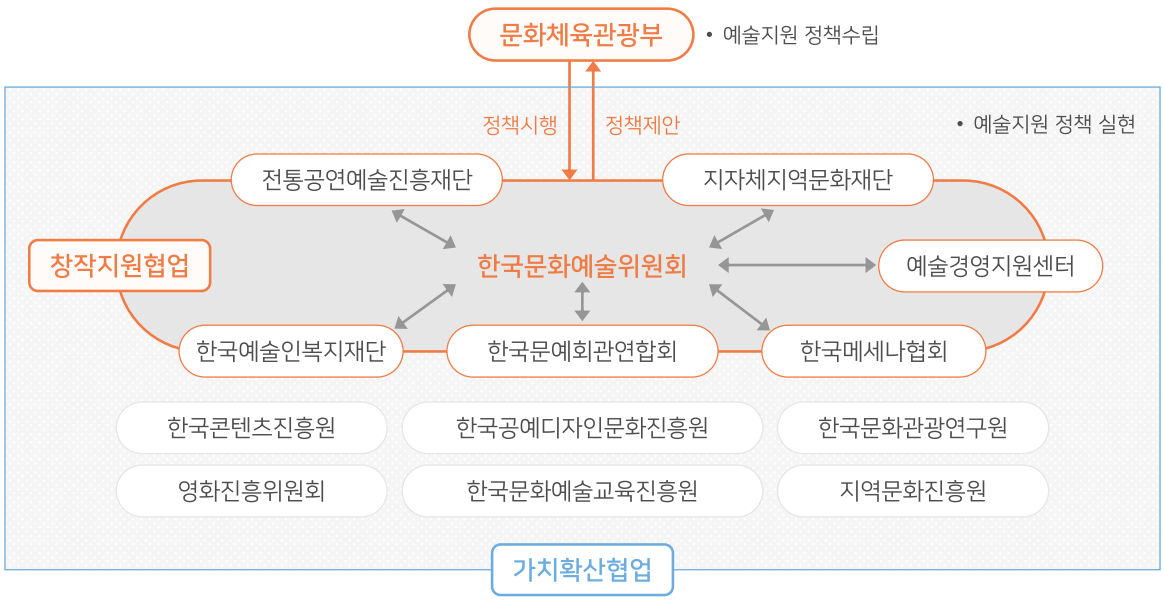
기관운영체계 혁신은 '공공성·자율성 강화', '책임성·투명성 제고', '조직 내부 역량 강화'의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단독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국회, 정부, 다른 예술행정기관들과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한 과업입니다. 지난하고 힘든 어려운 길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걸음 한걸음 느리지만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문화예술지원기관으로서의 공공성과 자율성 강화

기관의 역할과 위상 재정립

- 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독립성,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여타 예술지원기관 간 새로운 역할과 위상을 정립
  - 예술위-문체부 간 명확한 역할 정립을 위한 자율운영협약 체결
  - 위원장 호선제, 위원선임 제도 개선, 위원 권한 강화 및 책임성 제고
  - 국·공립, 지역, 민간 등 다양한 문화예술 기관이 참여하는 플랫폼 구축을 통한 종적·횡적 문화예술 지원 네트워크 강화로 정책 전달 체계 개편



빅데이터 기반 수요자 관점의 정책수립과 행정 추진

- 빅데이터 발굴·가공·생산 지원, 분석과제 발굴을 통해 사회적 이슈, 정책 분석, 통계자료 및 정책개발 분야 도출
  - 문화·체육·관광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21년) 참여
  - 유관기관의 국민생활·예술인 복지와 밀접한 기초 데이터 선정, 유관기관과 협력 추진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

- 조직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성 강화
  - 알리오 경영공시의 위원회 회의록 공개에서 더 나아가 회의 운영 과정 공개 추진
  - 문화예술계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연 단위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분석하여 투명하게 공개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 안정성 확보

안정적 사업 운영을 위하여 지속적인 재원 마련

-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주요 대안 마련, 적극적 홍보 및 효율적 기금 관리 체계 구축
  - 국회, 정부, 예술가, 언론 등 이해관계자 대상 여론 조성 활동
  - 문예기금 확충을 위한 법 제도 마련 (※국회, 정부와 긴밀한 협조 필수)
  - 문예기금, 국고, 체육기금의 예산 운영으로 혼용되고 있는 교부 신청, 승인, 정산 방식을 통합, 효율적 예산 관리체계 마련

혁신경영을 위한 조직역량 강화

위원회의 지원정책 전문성 및 전략 실행력 강화

- 예술지원정책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지원부서와 핵심 역량 사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갈 전담부서 신설
  - **정책지원부서 기능 강화** : 현장 의견 수렴, 정책의제 발굴 및 공론화, 예술정책 조사·연구 등 위원회 예술지원정책과 전략 실행력 강화
  - **미래전략사업 부서 신설** : 예술현장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핵심 전략사업을 이끌어 갈 전담부서를 통해 기관 중장기 전략 실행력 강화

외부 개방과 내부 전문성 강화



개방형 직위제

위원회 주요 시설(아르코미술관,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의 관리자를 민간에서 발탁

- 기초 예술 분야 대표 기반시설로서 경쟁력 강화



내부 전문성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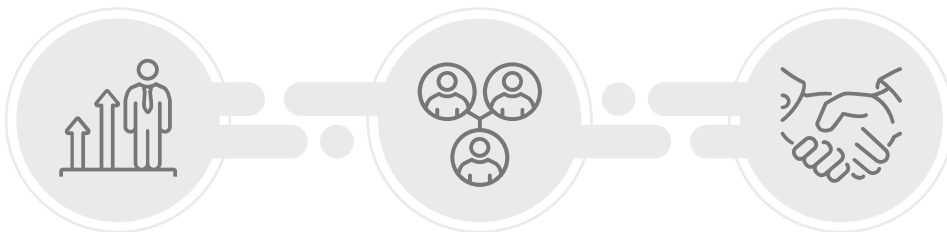
예술현장과 역량 기반의 교육훈련 체계 고도화

- **단기** : 예술현장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교육훈련제도로 개편
- **장기** : 역량모델링에 기반한 직무별 맞춤형 교육훈련체계 마련, 최고 수준의 예술행정가 육성

[인사관리체계 확립] 예술행정 전문가 양성

- 기관 특성에 적합한 경력개발경로(CDP)를 설계하고 나주-서울 간 순환보직 원칙 수립
- 전문직위 선정을 통한 사업별·직무별 대표선수 양성

[조직생산성 제고] 동기부여 극대화를 위한 인사제도 확립



성과와 능력 중심
보상체계 운영

합리적인
직급승진제도 운영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회적 가치구현]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 이행

- 기관의 투명하고 청렴한 경영을 위한 윤리경영체계 구축
- 기관의 임직원과 이해관계자, 고객의 인권보호·증진을 위한 인권경영체계 구축
- 사회공헌, 상생,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시스템 구축



06 현장 협력형 기관 운영

2005년 8월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전환된 것은 단순히 '진흥'이라는 단어가 '위원'이라고 바뀌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술현장이 '행정의 대상'에서 '동시적 주체'로서 승격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여전히 독임제 구조와 다르지 않은 조직 운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는 블랙리스트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술행정과 생태계의 후진성을 청산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을 혁신해야 합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예술인이 주도하고 정부가 조력자가 되는 '권한위임' 단계 형태의 '예술인주도 예술정책혁신' 구조로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참여', '소통', '토론'을 강화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위원회-사무처-소위원회-예술현장'으로 이어지는 체계 하에 다양한 이슈별, 의제별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양한 토론과 숙의 과정이 효율적이고 신속한 결과를 가져오는 과정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빠른 길보다는 바른 길을 가야한다는 믿음으로 이를 추진하겠습니다.



협치형 위원회 운영 활성화

[숙의민주주의] 토론과 의사결정을 위한 시스템 구축

- **개방과 협력의 조직구조 마련**
  - 위원회 내부 조직 구조(소/위원회, 사무처, 사업단위 등)단위에서부터 다양한 토론이 일어날 수 있는 민주적·개방적 의사결정 구조 마련
- **적극적 정보공개**
  - 위원회 내·외부를 대상으로 적극적이고 일상적인 정보 공개 시스템을 마련하여 정보 공유의 수평성 확보

[소위원회 운영 강화] 예술현장 참여 활성화

- 6기 제2차 소위원회 활동성과를 바탕으로 중장기 소위원회 활성화 계획 수립
  - 소위원회가 예술인으로 구성된 '예술의회'로서 기능하기 위한 기반 마련
  - 소위원회 인원, 예산 확대와 지원 체계 강화 추진
- <위원회-사무처-소위원회-예술현장>으로 연계되는 다양한 이슈별, 의제별 토론과 의사결정 활성화 효과 기대

현장예술 중심의 생태계와 공론장 형성

예술현장 아고라와 정책 혁신 캠프 운영

(가칭) 예술현장 아고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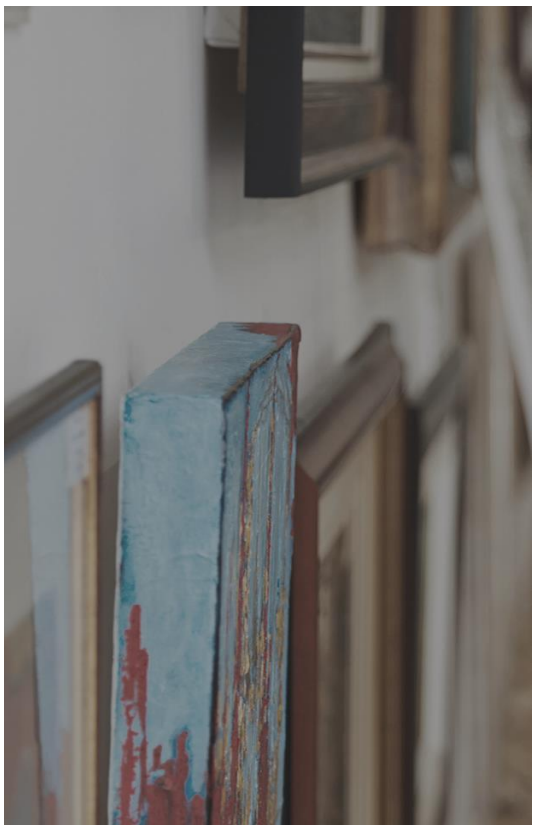
예술정책과 지원사업 혁신을 위한 사회적 공론장 운영

- 다양한 이슈와 의제들을 개방적·협력적으로 토론하고 의사결정하는 공론장으로, 상시 의견 개진과 논의가 가능한 온라인 시스템 구축

(가칭) 예술현장과 함께 하는 정책혁신 캠프

예술현장의 제도개선 제안과 아이디어를 경청하는 캠프 개최

- 현장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의 실질적인 고민과 경험을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집중적인 제도 개선 프로세스 마련
- 단발적인 행사가 아니라 예술 생태계와 공론장 형성 과정 경험이 축적, 공유되는 과정으로 접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비전2030은
문체부 비전2030 <사람이 있는 문화>,
새 예술정책 <예술이 있는 삶>,
아르코혁신TF의 23개 혁신의제를 계승하여
전략 방향을 정립하였습니다.
전략방향에 따른 세부 과제 발굴은 예술 현장의 의견을 듣고,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